

# 늪덕이나

안 춘 옥

박서방의 집 뒤산에는 온통 짙광이나무로 뒤덮여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여름내껏 거름을 내고 부지런히 가꾸느라 언제 한번 쉬어볼새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의 말을 귀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미여서 온종일 이웃하고는 무릎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커다란 다래끼에 무뎡히 넘쳐나는 짙광이를 넘겨다보던 그는 철썩 무릎을 쳤습니다.

때마침 가을철이라 온 한해 만나보지 못한 동생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심장때문에 고생하는 동생생각에 얼른 길 떠날 차비를 한 그는 씨엉씨엉 걸음을 내짚었습니다.

혈떡거리며 한참 언덕을 오르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메스해진 박서방은 더 걷지 못한채 비칠거렸습니다.

점심참에 강낭밥을 급히 먹은것이 아마 탈이 난것 같았습니다.

《아이구, 나 죽는다.》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도라지를 캐던 리씨가 그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아주버니, 웬일이시우?》

박서방은 연방 아구구 소리를 낼뿐 리씨의 물음에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원, 신신편편해가지구 엄살두 참...》

큰일이 난것으로 알고 역성을 들어주려던 리씨는 가볍게 웃음을 던진채 돌아서려 했습니다.

《먹은게 내려가지 않아 야단인데 뭣이 어쨌다구?》

박서방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에그머니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리씨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체기받으데야 이 찢광이이상 있나요?》

리씨는 바구니에 담아있는 찢광이 하나를 닝큼 박서방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박서방은 그것을 뿌리치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다구야, 이진 심장병에 먹는거란 말이요.》

가뜩이나 큰 눈을 두부럭거리며 박서방은 오히려 제편에서 뽕뽕거렸습니다.

《아휴, 내 말좀 들으라는데두요. 체기엔 이 찢광이가 제일이에요. 어서 입에 넣으라는데두요.》

리씨는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느라 몸살이였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그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식은땀까지 흐르는데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여서 박서방은 《아이고, 나 죽는다-》라고 하며 몸을 뒤채였습니다.

《어서 찢광이를 잡쉬보라는데두요.》

리씨는 보다못해 제손으로 이번에도 박서방의 입에 찢광

이를 넣어주려 했습니다.

손으로 툭 쳐버린 박서방은 리씨를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아파 죽을 맛이었는데 아낙네의 귀따가운  
지청구까지 듣자니 아예 상대를 하지 않을 잡도리였습니다.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날보구 이래라저래라  
해. 흥.》

두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던 길  
을 재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점점 더해만갔습니다.

하늘땅이 빙빙 도는것 같은 생각이 든 그가 머리를 돌려  
리씨가 있는쪽을 살피니 그는 온다간다 말 한마디 없이 이  
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던 박서방은 (혹시?!) 하는 생  
각에 저도모르게 찹팡이 한알을 입에 넣고 와작와작 씹  
었습니다.

새크무레한 맛이 들자 한알 두알 연방 계눈 감추듯 먹어  
댔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아픔이 차츰 멎기 시작했습니다.

(영?!)

박서방은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배를 문지르며 중  
얼거렸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다나니 내 배만 고생시켰군.)